



나누는 공동체, 더불어 사는 공동체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천주교회

ST. FRANCIS OF ASSISI CHURCH KOREAN COMMUNITY

Address: 135 West 31st Street, New York, NY10001
 Phone : 212-736-8500 (EXT 355, 384)
 347-834-5784
 Website : <https://stfrancisnyc.org/>
 Email: stfranciskc.org@gmail.com

주임신부 : Brian Jordan, OFM
 지도신부 : 김진열 가롤로 (작은형제회 :프란치스코회) carolokimofm@gmail.com
 지도수녀 : 김효주 (투스 평교베네딕도회 서울수녀원) seoulsb@gmail.com
 사목회장 : 백이백 아오스딩 646. 599. 5795

제1독서 | 열왕기 상 17,10-16 화답송



(후렴) 내 영혼 아, 주님을 찬양 하 여 라.
 ○ 주님은 영원히 신의를 지키시고, 억눌린 이에게 권리를 찾아 주시며, 굶주린 이에게 먹을 것을 주시네. 주님은 잡힌 이를 풀어 주시네. ◎
 ○ 주님은 눈먼 이를 보게 하시며, 주님은 꺾인 이를 일으켜 세우시네. 주님은 의인을 사랑하시고, 주님은 이방인을 보살피시네. ◎

신앙고백 :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

† 한 분이신 하느님을 ◎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 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음을 믿나이다.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 <밀주 부분에서 모두 머리를 깊이숙임>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수난하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날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계심을 믿나이다. 그분께서는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흠숭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씻는 유일한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제2독서 | 히브리 9,24-28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 알렐루야.

복음 | 마르코 12,38-44

성가 | 입당성가 [1] 1,2 절 예물준비 [18]
 영성체 [177] 파견 [421] 1~3절

미사 봉헌

연미사	봉헌
이신균 요한	익명
추승연 베로니카	박지민
이종환 토마스아퀴나스	익명
김경련 울리타, 최차혜	김지영 유스티나
김영우 요셉, 강건대 마리아 부부	김지영 유스티나
조창호	민성진 에드문드
세상떠난 모든 레지오 단원	꾸리아
유복연 마리아	하태일 하왜일
김금용 베드로	김보현 엘리사벳
생미사	봉헌
국유진 가브리엘라 세례축하	이지연 안나레지나
하서현 이사벨 세례축하	김윤수 미리암
김아현 에밀리아 세례축하	윤숙자 루시아
김지영 마리아 세례축하	남지혜 크리스티나
김가롤로신부, 김효주수녀, 이종훈바로	익명
이선민 마리아	박정자 로사
박알버트 축일	익명
임영애 스텔라 쾌유	주바울라
안영옥 분다 영육건강	주바울라

날짜	해설	1독서	2독서	보편지향	성찬봉사	복사
11월 10일	정유진	송명근	김승연	김승연	민덕미	한데레사 최사도요한
11월 17일	김유화	민완준	이경자	이경자	김영숙	이유스티나 김실비아

미사, 성사, 교리 안내	
주일 미사	오전 09:15 윗 성당
청년 미사	매월 2번째 토 18:00 아래 성당
고해 성사	08:30-08:50 아래 성당 고해소
혼인 성사	신부님께 직접 문의
유아 세례	매월 2번째 주일 미사중 *신청:사무실
봉 성 체	매월 1번째 목요일 *신청:사무실
예비신자 교리 견진 교리	일반인을 위한 교리 *신청:사무실 환자, 어르신을 위한 방문교리 *신청:사무실

☀ 세례성사 축하

오늘 미사중에 세례성사 받으시는 여섯 분의 교우님들 축하드립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아멘~"



김지영(마리아) 최재문(시몬) 국유진(가브리엘라)
김아현(에밀리아) 박준영(마르티노) 하서현(이사벨)

축하식: 오늘 미사직후, 교육관 3A

▶ 세례성사를 위한 예비신자, 대부모 만남예식

일시: 11/9(주일) 08시, Sr.효주 사무실

▶ 오늘(11/9) 전신자 연도, 미사직후 아랫성당

지난 10월 28일 선종하신 전명자 베로니카 교우님을 위한 연도가 미사직후 아랫성당에서 있습니다. 연도후 친교모임 있습니다.

▶ 친교모임

다미아노 홀/ 성당 밖 좌측 20m

오랜만에 성당에 나오신분, 새로 전입오신분,
처음 뵙는 분들께 먼저 다가가 따뜻한 인사를 나눕시다!



제 19회 사랑의 음악회 Love Concert



일시: 11/16(토) 7pm 장소: 맨하탄 성프란치스코 성당
*오늘 자(字) 주보에 첨부된 "2024년 사랑의 음악회 후원금 모금 봉투"는 미사후 성당 뒷문 데스크에서 접수하십니다.

▶ 11월 위령성월

묘지에서 연미사 봉헌을 원하시는 교우분들 신청받습니다.
신청 : Fr.가롤로

▶ 2025년 부활 세례 및 견진 교리반 모집

"교우 한분이 예비신자 한사람을 인도한다는 지향으로 주변에 권유해주세요." 일시: 매주일 10:50am, 교육관 3A
세례 및 견진일: 2025년 부활시기 *신청: Sr.효주 347.834.5784

▶ 미국 본당 연례 프렌즈 기빙 초대

일시: 11/17(일) 1:30pm~4pm
장소: 다미안홀. 포트럭 스타일로 진행
함께 오셔 따뜻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하세요.

▶ 하늘처럼 성가대 반주자 모집

성가대 단원들과 마음 합하여 하느님께 찬미와 영광을 드리실 피아노 전공하신 반주자를 모집합니다. 반주가 가능한 본인 또는 주변에 추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문의: 지휘자 646-696-4680

▶ 성경공부반

신부님반	시편과 지혜문학	2,4째주 토 10am~11:30am	2B
수녀님반	사도행전~요한묵시록	매주일 12:40pm~1:50pm	1B
		매주목 10am~11:20am	3A

▶ 성경을 읽기전 드리는 기도

하느님 아버지,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 성경을 읽은후 드리는 기도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소서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한인공동체 온라인 서비스 안내

1. 미국 본당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합니다. 구글에서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성당”을 검색하세요.

stfrancisnyc.org > korean-ministry > Translate this page
Korean Ministry - Saint Francis of Assisi
 클릭하면 한인공동체로 바로 연결됩니다.



공지사항 기부 후보

2대 마음 속 天使



투병 중이신 분들 위해 기도합니다.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Mt 25,4

김택영알버트 이옥기수산나 이남석베드로 김옥지아가다 이경희미카엘라 김동희헬레나 정창동폴리나 지군자스테파니 진정은마리아 박재호베네딕트 이경봉요셉그레고리오

옥토
 한중식 전문점

옥토

(646) 833-7864
 1 E 33St. NY, NY 10016
 (33가, 5애비뉴-매디슨 사이)
 www.octo.nyc

WONJO
 K BBQ since 1993

WONJO

(212) 695-5815
 23 W32St. NY, NY 10001
 www.newwonjo.com

UDON Lab
 Udon & Izakaya

(646) 838-5338
 43W 32nd St. New York, NY 10001
 www.udonlab.com @udonlab_nyc

더큰집
 The Kunjip

(212) 564-8238
 32 W 32St. NY, NY 10001
 www.kunjip.nyc

Clear Laser CITY CLINIC

얼굴 리프팅 212.697.1802
 색소 미백 레이저 카카오톡: clearlascity1
 주름 보톡스, 필러 5th Ave & 42nd St
 뉴욕 도셔먼 앞

이민/부동산 (아오스딩)

백이백 변호사

201-224-3400
 718-445-0345
 Paicklaw@gmail.com

한국 남도 7박8일 관광

지도자, 경영인 정신이해와 문화, 역사, 건강 체험. 혼자서 체험할 수 없는 남도 여행
 고향사랑 국제 연대
 847)269-9422
 131 E 69th St. New York 10021

마리아 투어
 Maria Tour USA
 성지순례

박 아그네스
 TEL. 212-594-7773, 646-808-7322

Clara Clara Inc.

맨하탄 사무실이나 기타 공간이 필요하신 분 연락바랍니다.
 (917) 596-1460
 306 W. 37th Street
 New York, NY 10018

Nest Seekers
 INTERNATIONAL
 부동산

크리샤 박 (917) 370-0394
 krishap@nestseekers.com

120 W 58th St. Manhattan, NY 10019

120 58 WINE & LIQUOR

린다킴 데레사
 212-265-0333 (FREE DELIVERY)
 MON-SAT:10AM-10PM / SUN:12PM-9PM

Kwangsuk "Joseph" Kim

공인 부동산 중개사
 Licensed real estate salesperson
408-220-4569
 Furumoto Realty of New York City, Inc.
 www.furumoto.com

MIDTOWN SMILE DENTAL
 hello@midtownsmiledental.com

임지수 마리아
 (212) 532-8666
 36 E 36th St. Suite 1K
 (36가, 매디슨-파크 사이)

평신도 주일

오늘 연중 제32주일은 평신도 주일입니다. 한국천주교 주교회의는 1968년 정기 총회에서 '한국 천주교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를 승인하고, 대림 제1주일을 '평신도 사도직의 날'로 정하였습니다.

이후 1970년부터는 날짜를 연중 제33주일로, 명칭을 '평신도 주일'로 바꾸었다가, 2017년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연중 제33주일을 '세계 가난한 이의 날'로 정함에 따라 연중 제32주일에 '평신도 주일'을 지내기로 하였습니다.

평신도(平信徒)는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으로서, 성품과 수도 신분에 속하는 이들을 제외한 모든 신자입니다. 다시 말해, 세례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고, 하느님 백성으로 구성되며, '저마다 각자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사제직, 예언자직, 왕직(봉사직)에 참여하는 이들입니다. 평신도를 의미하는 그리스어 [라이코스] ($\lambda\alpha\iota\kappa\omicron\varsigma$)는 3세기 이후 교회 문헌에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특히 19세기와 20세기 초의 많은 저술에서는 평신도라는 용어가 '속되다.'라는 부정적인 뜻으로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프랑스 혁명(1789~1799)을 기점으로 교회를 거부하는 반성직주의와 세속주의가 널리 퍼진 데 따른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부정적인 이해에 맞서, 신학자 콩가르 추기경 (Y.Congar, 1904~1995)은 교회 안의 평신도 역할을 연구하면서 [라이코스]라는 단어가 속되다는 의미를 지니면서도 이교 백성에 반대되는 거룩한 하느님 백성을 의미하는 [라오스] ($\lambda\alpha\acute{o}\varsigma$)에서 유래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회 헌장」은 '평신도의 본질과 사명'에 분명히 언급합니다: "평신도들에게는 세속적 성격이 고유하고 독특하다. ... 평신도들의 임무는 자기 소명에 따라 현세의 일을 하고 하느님의 뜻대로 관리하며 하느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것이다. ... 그러므로 평신도들이 특별히 하여야 할 일은 자신들과 긴밀히 연결되어있는 모든 현세 사물을 조명하고 관리하는 것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일이 언제나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고 발전하여 창조주와 구세주께 찬미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31항).

또한 평신도 사도직에 관한 교령 「사도직 활동」에서는 더욱 구체적으로 평신도 사도직의 소명과 목표, 분야와 형태, 준수해야 할 규범과 이를 위한 양성에 관하여 설명합니다. 그리고 1987년에 열린 제7차 세계주교시노드에서는 평신도라는 주제를 더 심도 있게 다루었고, 그 후속 문헌으로 「평신도 그리스도인」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들 문헌의 공통점은 평신도의 신원과 사도직 활동을 다루면서 그 역할과 가치를 더 깊이 인식하고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직무에 참여하는 평신도는 수동적으로 성직자나 수도자만을 바라보며 그 지시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에 따라 하느님 백성 전체와 협력하면서 교회의 삶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이들입니다. 이를 위해, 성경 말씀을 가까이하고 꾸준히 기도하며 교회 가르침을 배우고 성체성사에 자주 참여해야 하겠습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바탕으로, 모든 평신도가 친교를 이루고 주님의 말씀을 힘차게 전하며 세상에 사랑으로 봉사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